

부처의 육아정책 자체 성과평가

성과공유정보팀

육아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3개 주요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성과목표의 8개 관리과제이며,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부문이 가장 높은 성과라고 평가받았다. 교육부는 2개의 성과목표의 3개 과제가 육아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방과후 돌봄정책 강화’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5가지의 관리과제가 관련이 있으며,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3개 부처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의 확대, 각 사업별 질적 수준 제고, 지역간 역량 격차 완화 등 내실 있는 성과 도출과 코로나 상황에 맞는 대응의 모색이 좀 더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중앙 부처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관리 과제를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년도 상반기에 결과보고서를 통해 평가 등급을 발표한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자체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를 통해 성과결과와 개선점을 도출하여 차년도 정책추진의 개선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육아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2020년 육아정책 분야 주요 정책의 성과와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3개의 성과목표 내 8개 관리과제와 관련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성과목표에는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아동수당지급의 관리과제가 있다. 2020년에는 온종일돌봄센터 인프라 확대를 통한 이용 아동 수 증가, 아동수당제도의 운영 내실화에 집중하였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률은 97%선으로 고정되어 있어(보건복지부, 2021:86), 아동수당 수급률을 높이기보다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환경 조성’ 성과목표에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강

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증진의 관리과제가 있다. 보호대상 아동 보호 및 지원은 전담요원 배치 인원 증가, 지원대상 확대 및 예산 증가 등

사업의 확장을 통한 서비스 지원 확대에 성과가 있었다. 학대아동 보호 및 안전 증진은 올해 초 학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인식이 커지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 뿐만 아니라 지원 예산도 증가하였다.

〈표 1〉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평가 결과(2020)

성과 목표	관리과제	주요 성과
저출산·고령 대응 사회 기반 구축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다소미흡)	<온종일돌봄센터 인프라 확대> 1. 마을돌봄 '19.12월 4,300개소 → '20.12월 4,696개소(396개소, 9.2%증가) 2. 다함께돌봄센터 '19.12월 173개소 → '20.12월 457개소 3. 지역아동센터 '19.12월 4,127개소 → '20.12월 4,239개소 4. 이용 아동 마을돌봄 '19.12월 11.4만명 → '20.12월 12.2만명(0.8만명, 7.1% 증가)
	아동수당 지급 (보통)	<아동수당 제도 운영 내실화> 1.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263만 명)에게 매월 아동수당 지급 2. 아동수당 미신청 가구 원인 분석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아동수당 지급 이력연계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3. 아동수당 미신청 정보 → e-아동행복시스템의 신규변수로 추가, 아동학대 등 위기아동 사전발굴에 기여 가능 4.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 신규 도입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환경 조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 증진 (다소미흡)	1. 아동보호를 공적으로 수행할 아동보호전담요원 281명 시군구 배치 2.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위한 현장 소통 및 홍보 등 실시 3. 입양절차 전반의 국가책임 강화 및 입양인 사후관리 지원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보통)	1.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소득·주거·심리·교육 지원, '19년 80.6% → '20년 80.7%이상 향상 2. 부적응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 -부적응 아동 증가에 따라 사업비 '19년 12억원 → '20년 16억원 -지원대상 확대 '19년 850명 → '20년 1,200명 3. 드림스타트 서비스확대: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 확대(신규 초기상담 10,212명), 취약계층 아동 1,400명 마음방역 심리지원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보통)	1.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연장보육(16~19시 30분) 도입 2. 연장보육전담교사 신규 배치를 통해 부모의 부담 없는 서비스 이용,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 3.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24~97만원)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다소 우수)	1.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기준 개선(2.24. 고시 개정) 3.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4.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19.6.12. 시행)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품질관리 기반 마련, 평가 미참여 사각지대 100% 해소
보육 환경 조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우수)	1. 국공립어린이집 581개소를 확충(목표 550개소)하여 목표의 106% 달성 2. 연장보육 도입, 연장보육교사 신규배치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부모의 부담 없는 서비스 이용,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 도모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p. 84-99.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성과목표에는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관리과제가 있다.

수요자인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장보육 도입,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을 지원하였으며,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성과가 있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 품질제고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581개소를 확장하고 보육교사 부담 경감 등에 집중하여 성과를 도출하였다.

2. 교육부

교육부의 성과목표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유치등고 교육의 국

가책임성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 한다는 것과 사회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창출한다는 두가지이다. 유치등고 교육의 국가책임성 강화 성과목표 하에서는 성과목표 하에 출발선 평등과 유치원 투명성,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의 관리과제가 구성되어 있다. 출발선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긴급돌봄 탄력적 운영,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 확보, 공립유치원 보건교사 배치로 인한 건강지원 등 다각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운영의 관리과제는 사회정책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변화 창출이라는 성과목표 아래 있으며, 온종일 돌봄계획의 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업무 매뉴얼 배포 등 온종일 돌봄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집중한 성과였다.

〈표 2〉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평가 결과(2020)

성과목표	관리과제	주요성과
유치등고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출발선의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 (다소미흡)	1. 국공립유치원 대폭 확충 및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 당초 목표 대비 140%를 확충 2. 긴급돌봄 등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 3.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성 제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 개통 및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현장 안착 지원 4. 유아학비 인상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사립교원 기본 보조금 인상으로 교사급간 임금격차 완화 및 처우개선 5. 공립유치원 보건교사 배치로 유아 및 교직원들의 건강 지원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 (우수)	1. 코로나19 관련 상황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학습도우미 운영, 방역지원 등 긴급돌봄 실시. 집합·원격·블렌디드 및 소인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학교 운영 2.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긴급돌봄 매뉴얼 정비 추진 3. 비대면 교육기부 방식(온라인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등 활동 방식 및 영역 확대를 통한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방안 발굴 4. 온종일 돌봄정책’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단계적 확충·증설(‘19년 1,400실→ ‘20년 2,100실 등) 5. 돌봄전담사 채용 확대와 연수 및 원격교육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마련
사회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창출한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다소미흡)	1. 전년도 대비 확대된 온종일 돌봄 계획과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효율적 정책 추진 2. 현장 밀착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주도 정책 추진 지원과 수요조사를 실시함 3.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자와의 협업 및 업무매뉴얼 배포, 차년도 돌봄 모바일 수요조사 실시, 대국민 홍보

자료: 교육부(2021).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p. 119, 127-130.

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양육 체계적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의 6개 관리과제와 관련되어 있다. 가족친화직장문화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증가를 보였으며, 가족돌봄휴가를 통한 돌봄공백 최소화, 근로시

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이 집중되었다. 자녀돌봄지원 강화는 절차의 간소화,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자녀돌봄을 강화하였다.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 과제는 정량적인 성과 도출은 없었지만 캠페인과 가족서비스 확대 등에 집중하여 성과를 보였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은 가족형태별로 필요한 서비스에 집중하여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주거 지원부터 의료서비스, 상담까지

〈표 3〉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평가 결과(2020)

관리과제	주요 성과
가족친화직장 문화 조성	1. '20년 인증기업·기관은 4,340개사*로 전년(3,833개사)에 비해 13.2% 증가, 중소기업이 64.5% 차지 2.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인증기준에 '가족돌봄 휴가 이용' 항목 신설 3. 태백·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개최(10.14.)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4. 가족친화문화 확산 홍보 강화로 기업 경영문화 개선 및 국민 인식 제고
자녀 돌봄 지원 강화	1. 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 취소수수료 면제,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비율*을 높여 이용자 비용부담 완화 2. '아이돌봄서비스업'을 통한 서비스 신청, 자신의 대기 순번 등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대기 시스템' 도입으로 정보 접근성 제고 3.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 5월)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4. 서비스제공기관에 사례관리인력 신규 배치(총 222명, '20.1월~) 5.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현장실습 확대 등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질적 강화 6.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 문화 확산 7. 10개 지역 33개 공동체를 공모하여 학습·놀이, 급식 지원 등 78천명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활동 실시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	1. 가족센터 설치 및 심리정서 상담 신규 지원 등 가족서비스 확대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법제를 개선하고 포용적 제도 마련 3.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정부차원 캠페인으로 자리매김.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	1. 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2. 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한부모에게 시설 및 매입임대 주거 지원*을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 및 자립 환경 조성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게 질병 치료, 입원, 의약품 구입비용 등 의료비 지원('20년 신규) 4. 양육부·모의 1회 신청으로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담, 합의, 추심, 소송, 불이행시 제재조치 지원 5.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환경 조성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 지침 등 개정 추진 6.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홍보와 대국민 캠페인을 통한 정책 수혜자 발굴 및 사회적 인식개선 7.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 관계자의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콘텐츠 및 지원 서비스 자료 배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인권보호	1.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정보소외와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에서 누락 되는 사각지대 해소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으로 총괄기능 강화 3. 신규양성체계 마련: 다문화 이해교육 이주민 강사 양성, 다다음사업,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80개소)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

자료: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30-37.

통합적인 지원을 통한 환경의 개선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다문화가족지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내 정보소외 및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에 방점을 두고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4. 개선점

주요 3개 부처의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2020년 육아정책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온종일돌봄체계, 아동수당, 아동보호 및 학대아동 지원, 어린이집 및 무상보육 지원 등 전반적인 보육 정책에 집중되어 성과를 내었다.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개선점으로는 아동수당 지급률이 97%로 안정화된 시점에서 새로운 성

과지표 마련, 돌봄센터의 질적 수준 제고, 지역 간 정책추진 격차 완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초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온종일돌봄체계의 협업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집중하여 성과를 도출하였다. 자체적인 개선점으로는 국공립유치원의 확충은 140%로 성과를 내었지만 취원률은 상대적으로 목표에 미달되고 있다는 점,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이해 당사자 간 협업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지원,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돌봄공백 극복방안 등이 개선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직장문화 개선은 인증대상 제외 근거 마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 30%공제 미적용으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방지 대책 마련 등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부처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점 도출(계속)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뿐 아니라 품질 개선을 위한 더욱 적극적 노력이 더 필요 아동수당 지급률은 97% 선으로 고정화되는 추세여서 내년에는 성과지표 변경 필요 아동보호전문요원의 실질적 활동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검토 필요 지역별로 아동보호전문요원 역량의 편차가 크므로,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 필요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이 높지 않아 향후 보다 적극적 목표달성 필요 지역별 아동학대예방사업 안정화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중앙의 지원 필요 아동학대전문담임공무원 등 현장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심사업의 구체화와 체계적 설명 필요 아동학대발생비용, 행정감사지적 기관수 등을 지표로 활용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필요 현장에서 가능한 간소하게 현장점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교사: 아동 법정비용을 낮추어 공간밀집도와 교사업무량(강도)을 낮추는 방향 검토 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세 피드백 필요성 검토 필요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과제의 단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34%라는 목표치가 타당하지 검토 필요 방과 후 돌봄과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 간 조정과 협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확보할 필요 관리과제의 초점이 온종일 돌봄 확대에 있어, 내실화에 관련된 정책이 필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 노력과 극복방안이 필요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p. 84-99.

교육부(2021).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p. 119, 127-130.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30-37.

〈표 4〉 부처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점 도출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수렴 등 거쳐 보완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이용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아이돌보미에 대한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양성·보수교육과정 내실화 등 전문성 제고 및 긴급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시연계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 도모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 홍보와 더불어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가족다양성 교육 확대 실시 필요 • 한부모가족의 경우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상(제6조의3) 소득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필요 • 다문화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한 차별 요소 개선 필요 •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홍보사업 등에 대한 다문화·인증 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필요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p. 84-99.
 교육부(2021).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pp. 119, 127-130.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30-37.